

결절종에 의한 상견갑 신경 포착 증후군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전재명 · 김성연 · 안성찬

목 적

결절종에 의해 발생한 상견갑 신경 포착 증후군 환자의 진단 및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3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상견갑 신경 포착 증후군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 원인이 결절종인 환자로 감압술 및 신경박리술을 시행받은 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진단은 진찰 소견, 근전도 및 자기 공명영상 등을 이용하였으며 수술 후 평가는 근력의 주관적 회복 정도 및 ASES(Americ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의 평가 방법을 이용하였다.

결 과

수술 후 추시 기간은 최단 4개월에서 최장 3년 7개월로 평균 13개월이었다. 평균 연령은 36.1세로 남자가 10예, 여자가 4예였으며 좌측이 2예, 우측이 12예로 우세 상지에 호발하였다. 진찰 소견상 모든 예에서 견관절의 운동 장애를 보이지 않는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극하근의 심한 근위축 소견을 보인 경우가 8예, 상견갑 절흔(suprascapular notch) 및 견갑와 절흔(spinoglenoid notch)에 특징적인 압통을 보인 예가 10예였다.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10예 중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은 경우가 1예로 추시 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였으며 상견갑 신경의 극하근 분지만을 침범한 경우가 2예, 상견갑 신경의 압박 소견을 보인 경우가 7예였다. 전 환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 영상 소견상 상견갑 절흔(suprascapular notch)에 발생한 경우가 2예, 견갑와 절흔(spinoglenoid notch)에 발생한 경우가 3예, 상견갑 절흔 및 견갑와 절흔에 걸쳐 발생한 경우가 9예였다. 10예에서 개방적 후방 도달법에 의한 감압술 및 신경 박리술을 시행하였으며 관절경 검사와 감압술을 함께 시행한 4예에서 관절순의 특별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 후 ASES 평가치는 평균 86.4점(70~99.8)이었으며 아무런 잔류 증상이 없이 회복한 예는 6예, 간헐적인 통증이 있었던 경우는 2예, 근력의 약화가 남았던 경우는 6예로

전체 14예 중 8예(57%)의 경우에 증상이 남아 있었다.

결 론

상견갑 신경 포착 증후군은 수술 후 증상의 완전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조기 진단 및 수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포착이 주 병변 이외에 다른 부위에서도 다발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포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감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한다.

색인단어 . 상견갑 신경 포착 증후군, 결절종, 감압술, 근위축